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은 이끼나 부패물이나 양배추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자명하고 명확하게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불쾌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 한낱 이끼와 양배추와 비교라니! 하지만 사람은 양배추가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이라면, 사람과 양배추의 차이가 분명해야 하고 본질의 차이가 확연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과 양배추의 관계가 외모를 빼고는 절대적인 차이가 점점 흐려지는 것이 문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배추는 그냥 양배추로 기반이 있는데, 사람이 무심한 양배추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사람과 양배추의 차이를 들어서 사람됨을 역설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 차이의 핵심으로 이렇게 말한다. 양배추는 애초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할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쓰임에 맞으면 그만이다. 양배추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생산되는 다른 사물들처럼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있고,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되는 양배추의 쓰임새는 이미 씨앗 때부터 쓸모가 정해져 있으니, 잘 자라서 정해진 목적을 충족하면

사람은 양배추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

된다. 직접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설사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미 정해진 목적은 달라지지 않으니 걱정거리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배추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대신 합부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훔들스럽다고 비난해도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분노하는 양배추는 이미 양배추가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현하려고 애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의지는 노력하고 성찰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며, 책임 의식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지향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람됨이며, 그 지향성을 통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관심이나 순간적인 호기심 또는 감정적 솔림이 아니다. 더더욱 무지에서 나오는 맹목적이고 즉각적인 자기 충족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나가는 자세가 곧 지향성이다. 그리고 지향한다는 것은 선택한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와 이 의지를 추동하는 열정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지향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양배추의 존재 방식이다.

사람은 지향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밖과 세상으로 향하며 관계의 상호성 속에 자신을 세운다. 자기 충족적인 독단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과 이면 상황을 제대로 의식하고 판단하며 결정하

는 힘은 깊고 단단한 자기성찰과 상호적 관계 맺기의 능력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즉자적인 존재를 넘어서 대자적 인식이 없이는 사람은 다른 사물과 다르지 않다 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 사람의 선택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르트르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서 쉽고 익숙한 길로, 즉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가거나 힘겨운 용기를 내서라도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나쁜 선택은 반복되고, 좋은 선택은 드물지만, 삶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르트르는 사람과 양배추의 차이를 통해서 즉자적이고 즉물적인 삶을 넘어서는 대자적이며 지향적인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대자적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대자적 관계와 삶이 파괴되는 곳에서는 삶과 생명은 도구에 불과하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라는 거대한 악이 거침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본다. 그렇게 사람은 방황하며, 주춤거리며 실수를 반복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방향과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온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그럴 것이다. 다만 지금, 시대적 상황은 어떠한가? 사람 대신에 양배추나 이끼들이 더 많아지는 듯한 생각이 부디 근거 없는 착각이기를.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가끔 박물관에 간다. 오래된 것,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눈요기도 되지만 마음의 시창기가 면해질 때도 많다. 평소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또 경탄하게 해주니 고적한 곳에서 오히려 풍요함을 얻는다고 할까. 넓은 뜰이 있어 산책을 즐길 수도 있으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이득을 챙겨오는 셈이다.

나는 지금 한 선비의 초상화 앞에 서 있다. 제목은 '심득경 초상'. 공재 윤두서가 1710년에 그린 것이라고 한다. 가지런한 수염과 화사한 얼굴빛, 붉은 입술, 고요한 눈동자. 머리에 쓴 관은 기품이 느껴진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과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가 단정하고 반듯하다. 옥색 가죽신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린 자세는 생동감을 준다.

그런데 '심득경'은 누구일까? 화면 위쪽에는 '정재처사심공진(定齋處士沈公眞)'이라고 적혀 있다. 정재는 그의 호(號)일 것이고, 처사는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니, 정재처사 심공은 아마도 이름 없는 시골 선비라는 걸까? 그런데 어떻게

오래된 그림

이렇게 근사한 초상화를 남겼을까? 혹시 대단한 세도가였거나 만석꾼 부자라도 됐을까? 아니면 출중한 실력으로 남다른 업적을 이뤘거나 길이길이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녔다는 말씀? 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앞을 서성인다.

초상을 그린 공재 윤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화가다. 그의 자화상은 섬뜩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나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부리부리한 눈에 치켜 올린 눈썹, 두툼한 콧날과 딱딱한 입술, 한 울 한 울 나부끼듯 뻗어오른 수염.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목도 상체도 없어 얼굴만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이었다. 머리에 땀을 썼으나 그마저도 땀방울은 잘려있고, 보이는 것이라곤 뿔여저라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얼굴뿐.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올곧은 선비의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미안성이라는 게 밝혀진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중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놓고 몸체는 아직 유만으로 형태만 잡은 상태로 있다가 언젠가 그 부분마저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다. 완성되었다면 지금보다는 부드러워졌을 테지만 미완으로 남은 게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그토록 혁신적인 그림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에 비하면 '심득경 초상'은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든다. 담담하고 선한 표정에 땀방울을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도 같고, 물끄러미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도 같고, 초연히 세상을 관조하는 것도 같다. 같은 화가의 솜씨인데 '자화

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외닿는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림을 보고 또 본다.

마침 해설사가 다가온다. 그는 친절하게 그림을 설명해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심득경은 윤두서의 아저씨뻘인데 두 사람은 진사시에 급제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학문과 예술을 논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만 심득경이 일찍 죽었다. 깊고 아득한 슬픔 속에 화가는 마음을 다해 초상한 폭을 완성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듯 눈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어느 때 같으면 그냥 그림이 보다 했을 그림 한 폭이 오늘따라 유독 마음을 끈다. 왜 그러지? 쓸쓸한 것도 같고 비어 있는 것도 같은 저 눈동자 때문인가?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기억에 의존하여 그린 초상화 한 장, 오롯이 그리운 마음만으로 되살려낸 빛의 귀환이다. 그래서 그런가?

전시실을 나와 뜰을 걷는다. 정원의 나무들은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중이다. 바람이 분다. 저 오래된 눈동자처럼 서늘하고 공허한 바람이다. 부드럽고 살가운 바람이다. 이쪽과 저쪽, 옛날과 지금을 넘나드는 유구한 바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오래된 그림 한 폭, 유구한 그리움 한 장을 본 것이다. 가버린 빛과 그 빛을 그린 화가와 그들 사이로 오가는 애절한 마음을, 박물관의 한 부스 안에서 새삼 발견한 것이다. 그 마음에 불뉘어 아직도 서성이는 것이다.

GGM 노사상생협정서 준수해야 희망 있다

것으로 예상했다면 그 당시 GGM은 설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GGM에서의 노사상생 의미는 상생협의회 내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즉, GGM에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소통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위반하라는 강요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관련 단체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에 있음을 되새기고 GGM이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가 수 있도록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상생의 가치를 잃은 채 공멸의 길로 향하는 노동조합의 최근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GGM은 광주시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GGM은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23년만에 완성차 공장을 광주에 만들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만일 쟁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광주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광주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광주시민들은 GGM이 지역경제 발전에 더 공헌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발전은 곧 지역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1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GM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광주에 투자 유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청년인구의 유출과 실업

률 증가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GGM의 발전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점을 노동조합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다.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는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의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안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는 신생기업으로서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35만대 달성 전까지 출범하지 말았어야 할 노동조합은 이 협정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설립 취지를 함께 공감하기를 바라며, GGM의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마무리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GGM이 설립된 지 5주년이 된 현 시점에 누적생산은 14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캐스퍼EV가 성공적으로 양산되었고, 해외 수출도 순조롭게 진행돼 2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흑시라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된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담보될 수 없으며, 광주의 일자리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노동법에 따라 단체교섭은 진행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은 회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안과 파업 강행 등으로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이 GG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社說

막 오른 '예산 전쟁' 지역 정치권 사활 걸어야

해마다 이맘때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예산 전쟁이 벌어진다. 이른바 예산 전쟁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수합해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 상대로 한 1차 예산 전쟁이 이 시기부터 국회 상대 2차 전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상임위에서 증액과 삭감을 한 뒤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데 통상 연말까지 가다 보니 45일 가량이 2차 예산 전쟁 기간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지자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

주시는 국비 전략팀 3명을 국회에 배치해 인공기능 혁신 실증밸리 조성 등 국비 예산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비 확보는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 이상의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정부 예산안 대비 광주시는 3.2%(1020억 원), 전남도는 4.9%(4734억 원) 증액했는데 특히 전남도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도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을 입증하길 바란다.

체류인구 늘려 지역소멸 대안으로 활용을

전남지역 인구감소 지자체들의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4.3배에 달하는 데다 그만큼 경제유발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을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부가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체류하는 '체류인구'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즉 출퇴근이나 통학, 휴양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까지도 해당 지역 인구로 계산해 지방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체류인구가 전남지역 16개 인구

감소지자체의 경우 무려 주민등록인구의 4.3배인 만큼, 체류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전남지역 체류인구가 사용된 카드 사용액은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무려 43%나 차지했다. 전남지역 체류자의 체류 기간이 평균 3.3일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체류인구에 의한 유발효과가 그 지역의 경제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여기에 올 2분기 체류자들의 전남지역 재방문율과 숙박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도 체류인구의 효과를 방증하고 있다.

체류인구의 증가가 경제 유발효과와 인구소멸 위기의 대안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전남 방문객의 상당수가 당일치기나 거쳐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박형 체류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3년 12월 8일 중년 사내 2명이 순천 검찰지정 문을 두드렸다. 잠수사인 김용영(당시 42·여·수시 국동)씨 일행의 손에는 청자 4점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 해저에서 키조개를 캐다가 청자 4점을 건져올렸다. 작업 현장에는 더 많은 청자 무더기가 있다"고 진술했다. 김인식 검사는 완도군 문화공보실 직원 등과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씨가 지목한 해역을 확인한 결과 수심 15m 해저에 청자가 묻혀 있었고 현장에서도 무려 17점을 인양했다. 곧바로 문화재관리국(현국유선정)이 주안해 긴급 발굴단이 꾸려졌고 12월 흑한에 발굴이 진행됐다.

완도선

발굴단은 잠수사가 해저에서 철제 양동이에 담아 올리는 청자에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 조바심이 났다. 청자를 실었던 배를 찾아내지 못하고 아쉽게 2주만에 결된 1차 발굴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1976년 국내 최초로 수중 발굴된 신안선은 중국 산성이었기 때문에 발굴단은 내심 완도에서 우리 선박이 발굴되길 기대했다. 완도선은 이듬해 3월 26일 2차 발굴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작업일지에는

"선상에서는 합성이 올랐다"고 감동을 적었다. 완도선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중에서 발굴된 한선(韓船·우리나라 전통 선박)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12세기 고려선박인 완도선은 길이 9m, 너비 3.5m, 깊이 1.7m에 달하는 목재 범선으로, 10톤 규모로 추정된다. 완도선에는 끝부분이 마모된 청동 손가락, 철제 술, 손매 뿔은 나무망치, 나무 함치박 등 고려 선원의 생생한 선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적재됐다. 모두 3만 701점의 추가로 17점을 인양했다.

무릎이 실렸고 청자가 3만 646점으로 대부분은 차지했다. 청자는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산이유형 청자'로 불린다. 실제 해남 산이면 일대에서는 106기에 달하는 청자가가터가 발굴·발견됐다. 완도선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복원 전시되고 있다. 국립해양유물연구소가 완도군과 오는 7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선 발굴 40주년 기념 해양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우리 선박과 유물에 관심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듯하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기고



김덕모
전남대 빛그린산학융합지구사업단 특임교수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연대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그러한 기대와 약속이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GGM이 노동조합과 상생례를 하고 단체교섭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과 노동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지만, 그로 인해 광주 노사민정의 고뇌에 찬 사회적 합의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이뤄졌을 때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명시하면 노동관계법에 저촉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부득이 협정서 내에는 명시하지 못했지만, 누적생산 35만대까지는 무노조의 공감을 다 같이 가지고 이 지역만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대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졌고, 그 결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기업을 탄생시켰다.

GGM이 설립된 지 4년여 만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주국 신청 배달 안배)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